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 따른 건의안

의안 번호	제 93 호
----------	--------

제출연월일 : 1996년 8월 30일

제 출 자 : 김영택의원의 6인

□ 주 문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예산우회도로 공사가 남부와 북부가 동시에 개설토록 되었으나, 북부외곽도로 개설시 예산의 명산인 금오산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공사계획을 금오산 뒷편으로 터널시공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제 안 이 유

- 차령산맥의 정기를 이어 받은 금오산은 인자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세를 지닌 명실 상부한 예산을 상징하는 명산으로서 12만 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예산우회도로 공사가 남부와 북부가 동시 개설됨에 따라 군민들은 무한한 감사와 더불어 환영하고 있음.
- 그러나 북부외곽도로 개설시 명산인 금오산의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예산의 무궁한 발전의 혼을 담고 있는 금오산의 맥을 끊는다는 점과 자연적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12만 예산군민의 여망은 현 설계대로 시공 추진중인 반지하식 도로를 백지화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터널로 시공하여 예산의 명산인 금오산의 혼과 맥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건설 교통부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함.

□ 참 고 사 항

- 건의처 : 건설 교통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예산우회도로 축조공사에 따른 건의문(안) (금오산 터널화 시공)

존경하옵는 님 !

지방자치 발전과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충남 서북부지역 교통의 요충지이며 서해안 개발의 배후 도시로서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차령산맥의 정기를 이어 받은 금오산은 인자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세를 지니면서 예산을 지켜주는 명산입니다.

특히, 예산군민현장, 군민의 노래, 학교 교가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특색있는 곳에는 반드시 “금오산” 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에 명실상부하게 예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예산우회도로 공사를 남부와 북부를 동시에 개설하게 되어 우리 12만 예산군민들은 무한한 감사와 더불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외곽도로 개설시 우리 명산인 금오산의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예산의 무궁한 발전의 혼을 담고 있는 금오산의 맥을 끊는다는 점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충청남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도로개설을 위한 산 절개 금지” 와도 정면 배치되기에 금오산 중턱을 잘라 북부외곽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결사반대하오니 금오산 뒤편으로 하여 터널 시공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론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계획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12만 예산군민의 정서를 생가하시여 심사숙고 하셔서 금오산이 터널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12만 군민을 대표하는 예산군의회의원 일동은 예산군의 무궁한 발전과 혼을 담고 있는 금오산의 맥을 끊치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터널로 시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여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 의 사 항

- 차령산맥의 정기를 이어 받아 인자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세를 지니고 있는 예산의 명산 금오산이 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예산우회도로 축조공사 계획에 따라 금오산 중턱을 가로질러 북부의곽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어 예산군민의 정서와는 정면 배치되는 실정임.
- 따라서 12만 예산군민의 여망은 현 설계대로 시공 추진중인 반 지하식도로 개설을 백지화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터널로 시공하여 예산의 명산인 금오산의 혼과 맥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조치 요망.

1996년 월 일

예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